국비 보조금 줘도 못쓰고 71억 회수 당해

전남 하수도 사업 지지부진

영암·완도·여수 등 전남도내 일부 시·군이 하수처리 국비 보조금을 확보하고도 부지선정 지연·예산부족 등으로 사업추진을 못해 71억원을 회수 당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하수처리시설 등 사업이 상당기간 지연될 전망이다.

21일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2007년도 하수도 분야 국고 보조금 2천612억원 중 7월 말 현재 지자체 국고 집행률은 43.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 자치단체별 집행률은 광주 40.1%, 전남 40.4%, 제주도 45.9%, 경남(남해·하동) 60.6%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전남도내 지자체 가운데 영암군은 국고 집행률이 7.2%로 가장 낮았고, 다음으로 완도군(17.2%), 담양군(18.6%), 신안군(19.3%), 여수시(27.4%), 강진군(29.5%) 등이 30%를 밑돌았다.

사업별로는 분뇨처리시설의 국고 집행률이 2.8%로 가장 낮았으며, 농어촌 마을 하수도 및 슬러지 처리시설이 각각 4.7%와 23.3% 순으로 부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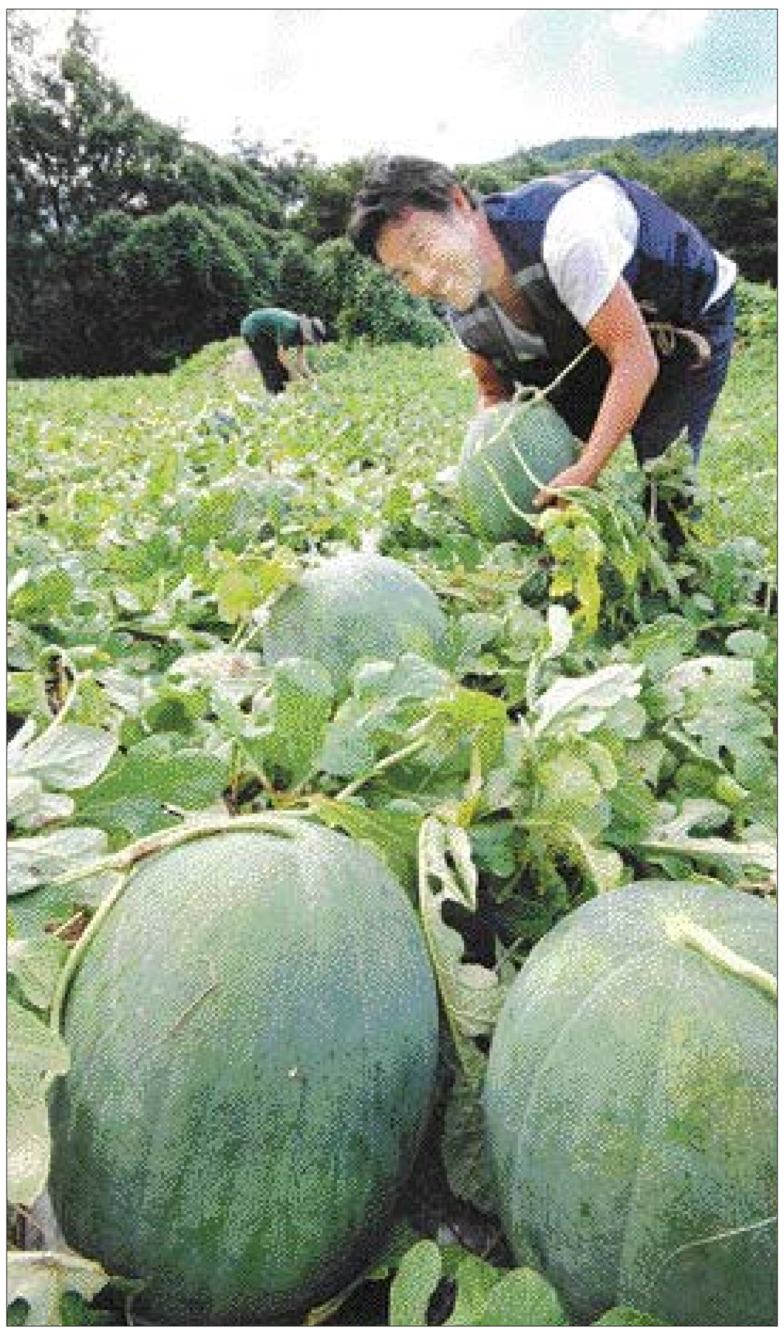
이처럼 국고집행률이 부진한 것은 지자체가 각종 민원과 부지선정 지연 등의 이유로 사업에 소극적인 데다 국고 대비 지방비 미확보에 따른 것으로 환경청은 분석하고 있다. 하수도 시설의 국비보조율은 70% 수준이다.

환경청은 이에 따라 이달 초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전남도의 경우 71억원, 경상남도 16억원, 제주도 20억원씩 각각 감액조치했다.

국비 감액된 주요 사업장은 ▲순천 황전하수관거(25억8천만원) ▲보성 득량하수관거(25억7천만원) ▲목포 슬러지시설(20억원) ▲순천고도처리시설(18억원) ▲영암 대불하수관거(14억4천만원) ▲신안압해 하수처리장(10억원) 등이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추가 조사를 통해 사업추진이 원활한 곳과 반대인 곳을 구별해 국고보조금 지원을 조정할 방침이다"며 "이번에 영산강 유역에서 감액된 국고보조금 대부분은 낙동강 유역으로 조정·배분됐다"고 밝혔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무등산 수박 나왔네

광주의 명물 무등산 수박이 21일 올해 첫 출하됐다. 광주시 북구 금곡동 무등산 자락에서 재배하는 '푸랭이'의 올 생산 목표는 3천여 통(2006년 2천500통)으로, 16호 농가에서 1억5천여만원의 소득을 기대하고 있다. 가격은 8㎏ 짜리 2만원, 10㎏ 4만원, 15㎏ 9만원, 17㎏ 12만원, 20㎏ 18만원선. /고경석기자 ksg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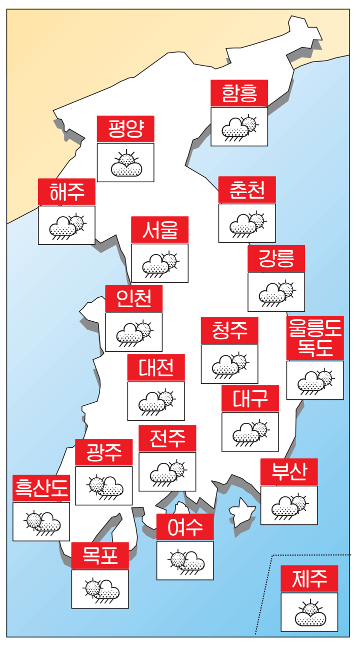
더위 식히는 비

흐려져 낮부터 한두차례 비가 오겠다.

8월 22일 (음 7월 10일) 날씨

◇전국날씨

광 주	흐려져 비	24~29℃
목 포	흐려져 비	24~28℃
여 수	흐려져 비	24~28℃
완 도	흐려져 비	24~29℃
구 례	흐려져 비	23~30℃
해 남	흐려져 비	23~28℃
장 흥	흐려져 비	23~28℃
고 흥	흐려져 비	23~29℃
순 천	흐려져 비	22~30℃
영 광	흐려져 비	23~29℃
진 도	흐려져 비	25~33℃
전 주	비 후 갬	24~30℃
남 원	비 후 갬	23~30℃
흑산도	흐려져 비	23~28℃



서해남부
앞바다=남서~서풍 파고 1.0~1.5m
먼바다=남서~서풍 파고 1.0~2.0m
남해서부
앞바다=남동~남서풍 파고 0.5~1.5m
먼바다=남동~남서풍 파고 1.0~1.5m

목 포 밀물〈 07:33 20:50 썰물〈 00:46 12:44
여 수 밀물〈 01:47 15:49 썰물〈 08:14 22:29

▲해뜸 05:57 ▲해짐 19:14 ▲달뜸 14:00 ▲달짐 --:--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23(목)	24(금)	25(토)	26(일)	27(월)	28(화)
날 씨						
최저/최고	24/32	24/32	24/33	24/33	24/32	24/31

폭염 뒤끝 '기습 소나기' 왜?

남쪽서 밀려온 공기 상승 찬 공기 만나 먹구름 형성

21일 오후 광주시 동구 금남로와 서구 풍암동에 5㎜가량 소나기가 내렸다. 폭염 뒤끝, 갑작스럽게 소나기가 내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요즘 불볕더위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은 따뜻한 공기가 남쪽에서 밀려왔기 때문. 여기에 작열하는 태양열이 내리쬐면서 지표면에 가까운 공기가 상승해 12㎞ 상공에 있는 찬 공기를 만나 강한 소나기 구름이 형성되고 있다.

무등산과 용진산 등 고지대에서는 구름이 산을 타고 올라가면서 기온이 하강, 비구름을 생성하는 '산악효과'(orographic effect)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소나기는 열대지방의 '스콜'(squall·대류에 의하여 나타나는 순간적 집중 강우) 원리와 비슷하지만, 주기성(週期性)을 띠지 않았다는 점에서 다르다.

광주기상청 관계자는 "장마 후 자주 국지성 집중호우가 내리고 있으나, 예측하기가 어려운 만큼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종행 기자 golee@

광주 '유-스퀘어 복합문화관' 12월 착공

교통영향 평가 최종 통과…2009년 완공

'문화수도 광주'의 문화 인큐베이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광주종합버스터미널 내 '유-스퀘어(U-square) 복합문화관'이 오는 12월 초 착공한다.

금호터미널(주) 측은 21일 "복합문화관 조성사업이 광주시의 교통영향평가를 최종 통과함에 따라 건축허가 등 관련 절차를 밟아 오는 12월 초 공사에 들어가 2009년 6월 완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광주시 교통영향평가위원회는 이날 ▲문화관 남측 및 서측에 진출구 개설 ▲신세계백화점 쪽 육교 연장 등을 조건으로 교통영향평가를 최종 가결했다.

기존 광주종합버스터미널을 증축해 건립되는 '유-스퀘어 복합문화관'은 연면적 13만6천525㎡에 300석 규모의 전문 음악홀과 전문 연극 공연장(220석), 미술전시장, 11개의 멀티플렉스 영화관(2천116석) 등이 들어서는 문화예술공간으로 조성된다.

문화관은 외부를 투명유리로 마감해 낮에는 열린 시설의 이미지를 추구하고 야간에는 내부조명으로 밝은 경관을 연출할 예정이다.

특히 문화관 건물 외벽에 역동적인 색띠를 배열해 젊고 생명력이 넘치는 이미지를 표현, 랜드마크 기능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호터미널은 문화관이 완공되면 지역문화예술인들의 활동무대로 제공해 문화수도 광주 건설의 한 축이 되도록 할 복안이다.

금호터미널 관계자는 "문화관은 향후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를 통해 문화수도 광주의 문화 인큐베이터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며 "버스를 이용해 터미널 접근이 용이한 광주근교의 지역민들에게도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오늘 밤 불을 끄고 별을 켭시다

광주 등 '에너지의 날' 맞아 소등 행사

광주 등 전국 268개 환경 · 소비자단체로 구성된 '에너지시민연대'는 '제4회 에너지의 날'을 맞아 22일 오후 9시부터 5분 동안 전깃불을 끄는 행사를 갖는다.

광주에서는 이날 오후 8시~9시30분까지 '푸른길 참여의 숲 광장'(주월동 빅마트 뒤)에서 '불을 끄고, 별을 켜다'라는 주제로 다채로운 행사가 열린다.

주요 프로그램은 ▲자전거 묘기(팀샤크트라이얼팀) ▲음악줄넘기 공연(광주 YMCA 공연단) ▲어린이 합주단(빛고을생협) ▲기념의식 및 소등 ▲캔들라이트(빛고을생협·광주전남녹색연합) ▲에너지 퍼포먼스(에너지관리공단 광주·전남지사) 등이다.

'에너지시민연대'는 또 실천방안으로 ▲민간부분 에너지 절약 위한 인센티브 부여 ▲대기전력 절감을 위한 플러그 뽑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실내 적정온도 유지하기 ▲과도한 간판 사용하지 않기 등을 제안했다.

한편 '에너지의 날'은 지난 2003년 최대전력 수요를 기록했던 8월22일을 기념해 제정됐다.

/김주정기자 jjnews@

아이스크림에서 유리가…이물질 '조심'

아이스크림 제품에서 유리파편이나 돌, 쇳조각 등 이물질이 나와 치아가 부러지는 등의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아이스크림 제품 관련 안전사고는 모두 71건으로 이물혼입으로 인한 사고가 34건(4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변질로 인한 사고가 26건(37%), 딱딱한 포장용기 때문에 발생한 사고가 5건(7%), 딱딱한 빙과류 등 제품의 강도로 인한 사고가 4건(6%)으로 집계됐다.

아이스크림 제품에 혼입된 이물질로는 비닐조각·머리카락·유리파편·고무·돌·플라스틱조각·쇳조각 등이 발견됐는데 대부분 원인 규명이 어려워 소비자들이 보상을 받기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은 또 아이스크림 제품의 변질 때문에 복통과 설사, 장염, 구토, 어지러움 등의 증상을 겪었으나 원인규명이 어려워 보상받기 힘든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주영훈도 '가짜 학력'

"조지메이슨대 안 다녔다"

작곡가 겸 방송인 주영훈〈사진〉이 자신을 둘러싼 학력 위조 논란에 대해 "데뷔 때부터 사실대로 학력을 밝혀 왔다"고 21일 말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 프로필 등을 통해 미국 명문 조지메이슨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것으로 알려진 주영훈은 이날 소속사를 통해 "최종 학력이 조지메이슨대로 알려진 것은 동생의 학력이 잘못 올라갔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주영훈 씨는 실제로 북버지니아대를 중퇴했다"면서 "그동안 인터넷 프로필을 수정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방법을 잘 몰라서 시기가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탤런트 이윤미와 결혼해 화제가 된 주영훈은 수많은 히트곡을 작곡했고, 현재 KBS 1TV '대한민국 퍼센트'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